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구역 나눔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각 교실
찬양예배	월 1회, 토요일	음대 강의실 217호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기쁨을 나누는 교회(빌2:28)”

주일 예배 봉사위원

	12. 13	12. 20	12. 27
대 표 기 도	유미경 집사	이수현 집사	김영희 권사
성 경 봉 독	유미경 집사	이수현 집사	김영희 권사
헌 금 위 원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안 내 위 원	유미경 집사	유미경 집사	유미경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대강절 절기입니다. 금주는 둘째 주로 평화를 상징하며, 보라색 초를 밝힙니다.
2. 성경 읽기-영의 양식으로 삼시다(겔16~36장)
3. 제직회-다음 주일(13일)은 결산 제직회로 18시 zoom을 통해서 모입니다.
4. 성탄, 신년예배-12시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브레멘교회협의회 새 규칙)
5. 예배당 안에서도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을 지켜주세요(손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주일예배는 정해진 시각, 있는 곳에서 예배에 동참하십시오(YouTube에서 브레멘한민교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교회창립 | 1983년 10월 23일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바이러스영향으로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2.대강절

- 송 영 Chor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새번역) 다같이
- * 찬 송 Gemeindelied 101장 다같이
- 기 도 Gebet 정용현 안수집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출20:14, 신5:18 정용현 안수집사
(2.Moses 20:14, 5.Mose 5:18)
- 설 교 Predigt 간음하지 말라! 이상호 목사
- * 찬 송 Gemeindelied 420장 다같이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유미경 집사

회심의 입맞춤

영국의 설교자 George Whitefield는 기독교 역사상 힘에 지나도록 수고한 사역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대서양을 오가며 펼쳤던 그의 헌신적인 설교 사역은 신대륙의 첫 번째 영적 대각성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Whitefield는 탁월한 설교 능력과 복음의 감화력을 소유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설교와 사역을 혈똥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순수한 말씀 사역자로, 전도자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 그가 일평생 자주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나 헛필드는 잊히게 하라. 오직 그리스도만 기억되게 하라”

그런데 그 위대한 설교자가 헌신적인 사역으로 마음이 곤고해질 때마다 어떻게 견뎠는지 아십니까? 그는 곤고해질 때마다 자기가 구원을 체험했던 예배당을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 그 의자에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자신이 회심했던 의자에 입을 맞추던 위대한 설교자의 마음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탕자의 길에서 돌아와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다시는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지 않으리라!’ 우리에게도 이러한 회심과 다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입 맞출 회심의 의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돌이킴 / 김남준 목사
(열린교회 담임)

* 하나님은 인간이 그분의 종이 되는 기적을 일으킨다.

- Karl Barth(독일 신학자) -